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종교개혁주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성경! Sola Scriptura!

오직 믿음! Sola Fide!

오직 은혜! Sola Gratia!

오직 그리스도! Solus Christus!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Soli Deo Gloria!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루터는 비텐베르크 수도원 옥탑방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깨달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주장했으며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교황청을 향해 매우 날카롭게 95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루터가 겨누는 것은 500여 년 전의 유럽뿐 아니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세속화되는 교회와 십자가 대신 면죄부를 갈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개혁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2024년 봉사지원서

11월 5일(주)까지 사무국에 제출

2023년 올 한 해도 교구일꾼으로, 헌금위원으로, 안내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식당봉사로 각자 맡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드리며 2024년 교회 봉사지원서를 받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금주 주보에 삽지로 들어간 『2024년 봉사지원서』를 작성하셔서 다음주 일인 11월 5일(주)까지 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고등부 부모 기도회

11.11(토)

오전 11시-12시 온라인으로

수험생을 위한 고등부 부모 기도회가 11.11(토), 오전 11시-12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고등부 부모 기도회에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https://meet.google.com/iei-obmw-fhs>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3)

대입수능 당일 학부모 기도회

11월 16일(목) 오전 8시 30분

대입수능 당일 11월 16일(목) 오전 8시 30분부터 수능 마치는 시간까지 교회에서 종일 기도회를 갖습니다. 장소는 웨스트민스터홀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11월

서울가족 토요일새벽기도회

11월 서울가족 토요일새벽기도회가 11월 첫 번째 토요일인 11월 4일(토) 오전 6시에 열립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와 국가를 위한 기도제목을 가지고 온 가족이 새벽기도회에 참석함으로써 위로받고 응답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감정현 구민우 최건 허정 이유찬 김준현 권동영
김예준 김종훈 김재용 이상민 한지원 경건웅
이강현 최윤학 이진우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김정균 소령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막 8:27-38)



손달익 위임목사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고난을 당하실 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사 53:4,5) 성전에서 야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시므온은 주의 모친 마리아에게 “또 같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눅 2:35)라고 예언하며 앞으로 예수님께 다가올 모진 고통을 말해주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 모두 세 차례입니다.(마 16:21, 마 17:22,23, 마 20:18,19) 이런 말씀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었는데 본문은 그 가운데 첫 번째 예언의 말씀입니다.

스위스 신학자 에밀 브룬너(Emil Brunner 1880-1966)는 ‘예수는 예수처럼 죽었고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처럼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악법에 의한 억울한 죽음이라 해도 그것은 철학적 사건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온 세상의 근본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쩔 수 없는 막대한 골목에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죽음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 오셨고 그 죽음을 향해 전진하시며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하시는 능동적이며 자발적 죽음이었습니다.

1. 주님의 질문

-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27절)

주님은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서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더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세간에 회자되는 여러 말들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못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재차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이 대답에 매우 만족해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출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한 곳으로 구약시대에는 이곳이 단 지방이었습니다. 단과 같은 변방의 땅은 다른 민족들과 인접해 있어서 언제나 외부 세계와 소통이 빈번했기 때문에 이방문화의 유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신앙적 혼합도 극심했습니다.(사 18:30,31) 또 왕상 12:25이하에서도 단 지방이 우상숭배와 혼합종교의 중심지가 되어 북왕국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원천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신이 신약시대까지도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헤롯에게 넘겨주었고, 헤롯은 이곳에 가이사르의 신전을 건축하여 헌납했습니다. 헤롯이 죽고 그 아들 헤롯 빌립에게 이 도시가 넘어갔는데 빌립은 이곳을 큰 도시로 확장하면서 빌립이 가이사에게 바친 도시라는 의미로 빌립보 가이사랴가 된 것입니다. 그 곳에는 각종의 로마 신들을 위한 많은 신전들을 건축되었습니다.

주님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 신전들이 즐지어 서있는 도시, 가이사랴 세상의 구주라고 찬송하는 이 참람한 도시의 한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이때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 결심을 제자들에게 밝히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게 될 당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확인시키신 것입니다.

2. 주님의 책망 -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십자가의 고난을 드러내어 밝히셨습니다.(31절) 그런데 이 말씀에 뜻밖의 저항이 생겼습니다. 또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33절)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스승이 죽음의 길로 가신다는데 이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제자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일말의 망설임과 양해도 없이 그를 사탄이라 부르시며 맹렬히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꼭 왕이 되셔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주시는 것이라 믿는 믿음이 있었고, 이 일을 위해 그들도 의기투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반발하고 저항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으로 알고 서로 자리다툼을 했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그랬고 부활하신 후에도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습니까?’라며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정치적 야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주님의 십자가로 가시는 것을 만류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도 이런 유혹은 언제나 있어왔습니다. 이단의 출현, 교회의 분열, 급진 신학의 등장 등은 언제나 교회로 하여금 십자가 복음 증거를 휘방당하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의 칭찬과 존경을 얻도록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나라의 정치 현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사회적 변화에도 민감해야 하고, 이 땅의 문화를 새롭게 하는 일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올바른 정치적 선택이 국민적 의무이며 선한 일들도 우리의 마땅한 도리이지만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책임은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귀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라의 정치 현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사회적 변화에도 민감해야 하고,

이 땅의 문화를 새롭게 하는 일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올바른 정치적 선택이 국민적 의무이며

선한 일들도 우리의 마땅한 도리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의 궁극적 책임은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귀결되어야 합니다

다. 십자가 복음의 전파는 생명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일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혁을 가져오는 가장 든든하고 신속한 길이기도 합니다. 어떤 시대, 어느 지역에서도 이념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선 증거될 때 세상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3. 주님의 당부 -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모든 유혹과 인간적 우려를 외면하신 채 갈 길을 재촉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자세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동력도 내가 아니요 인생 목적도 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함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기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이미 지고 있는 자기를 위한 짐을 내려놓아야 주님의 짐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섬긴다고 하면서 희생과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짐이 없는 위선적 종교놀이만 한다면 무엇이 가능하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 진실한 주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길이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삶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 이전 로마 가톨릭교회는 초대 교회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영역인 구원을 '면죄부'라 부르며 돈을 받아 팔 정도로 로마 가톨릭교회는 부패했습니다. 그로 인해 1517년 마르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악행을 반박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며 거짓에 대한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진행되는 중 로마 가톨릭의 신앙을 반대하는 개혁주의자들이 Sola(오직)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세운 신앙 체계를 Five Solas라고 합니다. Sola Scriptura(오직 성경), Solus Christus(오직 그리스도), Sola Gratia(오직 은혜), Sola Fide(오직 믿음), Soli Deo Gloria(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개혁자들은 성경과 그리스도와 은혜와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되는 교회와 개인의 삶을 꿈꿨고 개혁교회는 이 다섯 가지 신앙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개혁은 95개조의 반박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은 이 다섯 가지 신앙 체계를 만드는 것으로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삶으로 저항했고 다섯 가지 신앙 체계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들의 목숨과 모든 것을 걸어서 개혁했습니다. 종교개혁은 루터가 반박문의 내용대로 저항하고 Five Solas 신앙 위에서



최종국 목사

우리 삶에서 개혁은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개혁은 선언과 기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개혁을 실천하고 행동했을 때 완성됩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우리 교회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개혁하며 살아갑시다

삶으로 거짓에 저항했을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개신교도를 영어로 Protestant입니다. 로마 가톨릭에 대해 저항했고 진리가 아닌 것에 저항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로마교회로부터 개혁된 우리 개혁교회는 삶과 신앙이 항상 개혁되도록 깨어있어야 하고 저항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지, 오직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지,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인지 끊임없이 살펴보고 그 진리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고리를 끊어내고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개혁은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개혁은 선언과 기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개혁을 실천하고 행동했을 때 완성됩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우리 교회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개혁하며 살아갑시다.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교회가 변화하자 사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했습니다. 우리도 나의 삶과 우리 교회를 개혁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네바 마스티옹 공원의 종교개혁기념비 부조. 왼쪽부터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처음 시작한 파렐, 칼뱅, 칼뱅의 후계자인 베자, 스코틀랜드에 장로교회의 씨앗을 뿌린 닉스

주님이 쓰시는 사명자



김금재 안수집사
(2023 사명자대회
홍보분과)

올해로 서른두 번째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사명자대회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설립정신과 사명을 되새김하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운동이라고 합니다. 지난 10월 8일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발대식과 함께 시작된 올해의 사명자대회가 '성령이여 우리를 위로하소서!'라는 주제 아래 50일 동안 서울교회 모든 성도가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교회와, 개인, 가정과 일터, 다음세대, 선교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24시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릴레이 기도를 통해 서울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불꽃이 일어나는 풍성한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행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명자대회가 시작 된지

도 벌써 3주가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동참하지 않은 성도님들께서는 동참하셔서 주님께서 성도님 각자의 마음에 새겨두신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명자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8월 2023 사명자대회 준비위원회 홍보분과위원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저는 사명자대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했었음을 고백합니다. 회의를 통해 정성으로 기도하며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과위원님들의 헌신과 열정은 저의 신앙생활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깊이 성찰하고 회개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특별히 맡겨 주신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명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관점이 아닌 사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아무리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

다. 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듯이 나라는 그릇에 주님을 담으면 주님이 쓰시는 주님 그릇이 되어 부여해 주신 서울교회 디자인팀원으로서의 사명을 다 할 것입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저희 디자인팀에서는 대회 홍보를 위한 교회 입구 대형 현수막과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카드 등을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팀원들이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서울교회 디자인팀은 디자인을 통해 서울교회와 새로운 다음세대의 부흥을 위해 사명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 그 역할을 수행하려 합니다.

2023 사명자대회를 통해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의 길을 가는 축복과 행복의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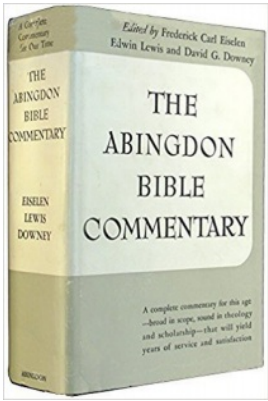


▷ 살롬경로대학(부장:김광태 장로)에서는 지난 10월 17일(화) 좋은 가을날 야외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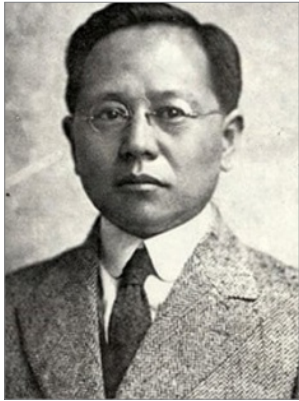
△마리아전도회(회장:정윤희 권사)는 지난 21일(토)에 주혜주 대표(마음극장 심리코칭 연구소)를 강사로 '행복한 나, 더 행복한 자녀'라는 주제의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빙돈 단권 주석’ 사건



미국 아빙돈 단권 주석 성경



양주삼 목사



한경직 목사



김재준 목사



송창근 목사

1930년대는 다양한 신학적 충돌이 발생한 시기이다. 김춘배 목사의 여론논쟁 사건이 시작된 1934년에는 [만국주일공과]의 “창세기의 저자가 확실하지 않다”는 문구가 문제가 된 김영주 목사의 ‘창세기 모세 저작 부인사건’과 미국 아빙돈출판사(The Abingdon Press)에서 간행한 주석서 The Abingdon Bible Commentary가 성서 비평학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 ‘아빙돈 단권 주석 사건’이 발생했다.

‘창세기 모세 저작 부인사건’과 ‘아빙돈 단권 주석 사건’은 모두 장로회와 감리회의 학자들이 함께 발행한 책이 장로회에서 문제가 된 사건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신학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던 감리회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들이 장로회에서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여론논쟁의 김춘배 목사와 ‘창세기 모세 저작 부인사건’의 김영주 목사가 모두 일본 유학과 신학자로 감리회 계통의 관세이가쿠인(關西學院)대학에서 수학한 것을 고려하면 1930년대 중반의 신학적 충돌은 장로회 신학과 감리회 신학의 충돌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세 사건 중 가장 본격적인 신학 충돌은 ‘아빙돈 단권 주석’ 사건이다. 1930년 간행된 아빙돈 사의 주석서는 1934년 한국에 번역되어 감리회 출판사인 신생사(新生社)에서 역시 감리회 교육국 총무인 류형기 목사의 책임번역 및 편집으로 출판되었다. 책의 이름은 [단권성경주석]이었다. 방대한 분량의 책이었기 때문에 전체 번역자는 53명에 달했다. 번역자를 살펴보면 당시 신진 신학자들이 총동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감리회에서는 양주삼, 정경옥, 김창준, 전영택, 변홍규 등이, 장로회에서는 한경직, 김재준, 송창근, 채필근, 김관식, 조희렴, 윤인구 등이 참여했다. 번역자의 대다수는 미국 유학파였다.

이 주석서의 특징은 당시 미국의 신학 경향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서비평, 역사비평, 고등비평 등의 방법이 활

용되어 있었다. 이런 비평학은 성서를 좀 더 원뜻에 가깝게 읽어내기 위한 방법론이었는데 현재의 성서신학에서 보기에는 낮은 단계의 연구방법이지만 당시 한국에서는 매우 파격적이고 진보적인 것이었다. 감리회는 번역자들이 당시 감리회의 주류를 형성하던 인사들이었고 감리회의 신학적 분위기가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이 주석 번역으로 인한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주석의 서문을 쓴 류형기는 오히려 이 책이 학구적이면서도 복음적인 명저라고 자신하였다.

그러나 보수적이었던 장로회는 격랑에 빠져들었다. 문제는 성서비평학을 수용할 수 있느냐에 있었다. 성서가 쓰인 당대의 역사적 맥락, 내용의 문학적 요소, 수사학, 저자가 참고한 자료, 그 자료의 편집구조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성서를 비평하는 것이 성서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비평학은 이단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당시 한국의 장로회에는 성서를 분석이나 해석하지 말고 적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문자주의적 성서이해인 문자무오설(文字無誤說)과 축자영감설(逐字靈感說)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주석서가 출판된 1934년 장로회 총회에는 황해노회장의 헌의서가 제출되었다. 내용은 ‘이 성서주석을 불매할 것을 선언하고 장로회의 각 기관에서 활용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김춘배 목사나 김영주 목사의 사건과 이 사건은 좀 다른 점이 있었다. 앞의 두 사건은 장로회 목사 한 명에 대한 처벌을 총회에서 결정하면 될 일이었지만 이 사건은 감리회와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 총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개입하여 번역자를 이단성이 있다고 치리해 버리면 함께 번역한 감리회와 불화가 생길 여지가 있었던 것이다. 1935년 총회는 ‘장로회 교리와 맞지 않는’ 주석서의 불매를 결정하면서 번역자에 대한 치리는 각 노회에 일임해 버렸다. 이제 공은 노회로 넘어갔다.

그런데 장로회도 각 노회에 따라 서로 다른 신학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노회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은 확연히 달랐다. 개방적이었던 서울의 경성노회는 이 문제를 크게 다루지 않았지만 보수적인 평양노회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했다. 노회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평양지역의 원로인 길선주 목사는 이 주석서를 ‘이단서’로 규정했다. 평양노회에는 한경직, 채필근, 김재준, 송창근 등이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 중 채필근은 빠르게 사과하고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였다. 한경직, 김재준, 송창근은 한 달 정도 버티다가 장로회의 기관지인 「신학지남」에 사과도 변명도 아닌 ‘유감의 뜻’을 표하는 애매한 글을 쓰고 문제를 무마했다.

아빙돈 단권 주석 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하지만 그 여파는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프린스턴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한경직, 송창근, 김재준은 귀국 후 한국의 신학발전을 이끌어 가야 할 인재였다. 그러나 이들은 이 사건 이후 새로운 신학적 연구나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 결과 장로회 안에서는 더 이상 활발한 신학적 토론이나 논쟁이 발생하지 않았다. 신학의 발전이 멈춘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해방 이후에 치러야 했다. 자유주의 신학 논쟁으로 예상과 기장이 분열한 것이 그 대가였다. 신학을 연구함에 있어 학문과 사상, 의사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억압되면 하나님 말씀의 본래 의미 파악에 떨어지게 되어 신학의 발전과 교회의 일치를 이루기 어렵고 지나치게 학문의 자유만 강조하면 신학적 오류와 교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1934년 장로회에서 발생한 신학자들과 교회의 충돌이 모두 합리적 연구 토론보다 교권에 의해 강압적으로 막을 내린 부분은 이런 방법이 훗날 장로교 교단 분열의 요인이 된 것을 생각하면 두고두고 아쉬운 부분이다.

식사 제공

- 최중국 목사-유에스더 사모 (목사 안수 감사드리며)
- 교회 제공



2023 성경암송대회

2023년 성경암송대회 범위와 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도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11.11(토) 일반부 본선
11.12(주) 교회학교 본선
- 범위 : 잠언 9장-16장
(4년간 잠언 전 장 암송)
- * 부별 대상 수상자는
11월 12일(주) 찬양예배 시 암송

서울문화교실

구분	요일	시간	과정	장소	강사
클래식기타합주	주일	12:40-	10주	505	장윤식 집사
통기타	주일	12:40-	10주	605	박민서 집사
	토	11:00-	10주	505	김상윤 선생
베이스기타	토	12:20-	10주	505	
드럼	토	11:00-	10주	601	한도연 선생
색소폰	토	14:00- (90분)	5회	505	최명아 선생
찾아가는힐링연기	토	토 12:00-(120분)	5주	701	박재현 배우
말씀(말씀안에 성장성극)	주일	10:00-	10회	505	
핸드벨	주일	14:30-	10주	402	송재월 권사

70인전도대 11월 전도 일정

주일	자원자 (오후 1시-2시)	수	전도회 (오후 1시-2시)	토	선교회 (오후 1시-2시)
10.29	자원자	11.1	도르가, 루디아, 뵤뵤	11.4	빌립, 안드레, 베드로
11.5	자원자, 마리아	11.8	한나	11.11	바울, 엘리야
11.12	자원자	11.15	에스더	11.18	모세
11.19	자원자	11.22	리브가	11.25	이삭
11.26	자원자	11.29	권사회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0월30일	월	요 4:46-6:15	
10월31일	화	요 6:16-7:31	
11월1일	수	요 7:32-8:59	
11월2일	목	요 9-10	
11월3일	금	요 11-12	
11월4일	토	요 13:1-15:17	
11월5일	주일	요 15:18-18:40	

이름:

일 자	요일	1년2독	확인
10월30일	월	겔 28-33	
10월31일	화	겔 34-40	
11월1일	수	겔 41-48	
11월2일	목	단 1-5	
11월3일	금	단 6-12	
11월4일	토	호 1-14	
11월5일	주일	을 1-3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가까이 가는 순례의 여정에 은혜 내려 주시고, 입술의 고백보다 행함의 열매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이 되게 하소서.
2.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시고 보호하신 목적, 사명을 감당하는 서울교회 되게 하소서. 파송선교지와 농어촌교회, 군선교지를 돌보아 주소서.
3.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친히 보살펴 주시어, 복음 위에 통일된 나라 임하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전쟁과 폭력과 기근과 불의로 고통당하는 곳에 그리스도의 평화와 치유가 임하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최종국
- ◇ 전도사
박미라
- ◇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 ◇ 교육전도사
김예지 배인혜 김가은
- ◇ 협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 ◇ 시무장로
이계홍 오치열 안인호 최형열
- 차도훈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혜언
-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청년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2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영여성경부	오전 10시 15분 - 11시	802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8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6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